

〈오디션〉 소리 없이 강하다!

본격적인 새 학기가 시작된 3월의 전체적인 게임사용량은 2월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10위권 내 게임들은 기존 유저들을 기반으로 순위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이하 30위까지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게임들은 RPG와 아케이드를 중심으로 일부 게임들의 순위변화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그라나도 에스파다〉, 〈제라〉, 〈용천기〉 등 대작 RPG들의 상승폭이 컸으며, 〈갯앰프드〉, 〈오디션〉과 같은 캐주얼게임 또한 순위가 상승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꾸준한 사용량을 보이며 상위권에 포진해 있던 〈카트라이더〉, 〈열혈강호〉, 〈워록〉, 〈알투비트〉 등은 2~5계단 순위가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대작 게임들과 상위권을 고수하기 위한 기존 게임들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3월 한 달간의 게임동향을 살펴봤다.

자료: 게임트릭스

[게임 장르별 기상도]



무엇보다 <오디션>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한달 이었다. 오디션은 2월 대비 무려 6계단이나 뛰어 오르며 15위에 랭크되는 저력을 보였다. 오디션은 T3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하고 모비션이 퍼블리싱하는, 음악과 댄싱을 접목한 캐주얼게임이다. 조작이 간편한 인터페이스와 청소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음악과 댄싱, 그리고 적절한 아이템이 조화를 이루며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 상위권에 랭크된 게임들 대부분이 RPG, FPS 장르이거나 또는 대전이 가미된 아케이드 장르인 것을 감안하면 오디션의 이 같은 선전은 '댄싱'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개척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오디션이 온라인음악 사이트인 벅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2월 15일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여 3월 게임사용량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제라>는 3월 들어 게임사용량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21단계 상승한 21위에 랭크됐다. 그러나, 비약적인 순위 상승과는 달리 게임평가 벅스가 개발한 대작 RPG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캐릭터 생성과 삭제의 반복으로 인한 게임머니의 비정상적인 축적, 그리고 일명 '430사태'라 불리는 보상 경험치에 대한 비정상적인 패치 등으로 유저들의 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는 반대로 오픈 베타 초기부터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라나도 에스파다>는 3월 들어 5단계 상승한 11위에 랭크되며 10위권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잠시 쉬었다 간다! <카트라이더> · <워록>

국민게임이란 칭호를 얻으며 2년간 줄기차게 달려왔던 <카트라이더>의 약세가 두드러진 한 달이었다. 비록 순위

3월 온라인게임 순위

조사기간: 2006년 2월 23일~3월 23일

순위	장르	게임 타이틀	점유율 (%)	평균 총 사용시간 (시간)	PC당 사용시간 (분)	평균 체류시간 (분)	
1	-	FPS	스페셜포스	14.37%	834,235	2,651	53
2	-	RTS	스타크래프트	11.65%	676,397	1,960	70
3	▲2	RPG	리니지2	6.51%	377,617	1,332	132
4	-	RPG	리니지	5.99%	347,510	1,201	95
5	▼2	레이싱	카트라이더	5.66%	328,711	1,008	46
6	-	FPS	서든어택	5.64%	327,086	1,050	61
7	-	RPG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4.95%	287,464	1,160	127
8	-	RTS	워크래프트3	4.01%	233,017	1,066	89
9	-	스포츠	프리스타일	3.13%	181,526	856	57
10	-	RPG	로한	2.86%	166,262	877	115
11	▲5	RPG	그라나도 에스파다	2.54%	147,137	603	90
12	▼1	RPG	메이플 스토리	2.27%	131,703	613	82
13	▼1	고스톱	한게임 신맛고	1.98%	114,944	414	25
14	▼1	RPG	던전앤파이터	1.66%	96,275	506	85
15	▲6	아케이드	오디션	1.55%	89,834	435	61
16	▲2	아케이드	켓앰프드	1.43%	82,760	573	100
17	▲2	FPS	건즈 온라인	1.37%	79,559	608	76
18	▼1	RPG	뮤	1.34%	77,898	471	82
19	▲5	RPG	열혈강호	1.27%	73,996	514	87
20	▲5	FPS	워록	1.21%	70,441	328	72

신뢰도 95% 오차율 4.71%

에서는 2단계 밖에(?) 하락하지 않았지만 3월 이후 점유율 6%대가 붕괴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끊임없이 캐릭터가 성장하는 RPG 장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게임이긴 하지만, 지난 날 명성에 비하면 초라할 만큼 뚜렷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스페셜포스>와 더불어 FPS 장르를 양분했던 <워록> 역시 새롭게 등장한 <서든어택>의 강공을 이기지 못하고

5단계나 하락한 20위에 랭크되었다. 워록의 하락은 무엇보다 스페셜포스와 서든어택이 단기 승부 위주로 진행되는 게임임에 반해, 넓은 맵을 위주로 한 장기전 승부가 유저들에게 다소 지루하게 느껴진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워록에서도 소규모 맵을 도입했지만 기세를 바꾸기엔 역부족인 듯 보인다.

이 밖에 <열혈강호>, <알투비트> 역시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2~5단계 하락한 19위, 22위에 각각 랭크되었다. ●